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의 과제

오 만 균 이사

5월은 꿀벌과 양봉인의 계절이다. 아카시아꽃이 개화하여 온 산야가 하얗게 물들면 누구나 개화 기간이 몇 일 더 길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 이때, 전국에 계신 양봉 가족들은 아카시아 벌꿀채밀에 몸과 마음이 바쁘시리라 생각된다.

우리에 양봉산업역사의 기간은 짧지만, 이제 봉군 200만군 시대에 접어들었다.

매년 벌통수의 증가로 10여년전에 비해 현재 벌 통수는 약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인근 일본에 비해서도 약 세 배 가까이 우리나라가 많은 봉군이 사육되고 있는 현실이다.

주 밀원인 아카시아나무는 양봉농가의 제일가치가 높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수종변경과 마구잡이식 벌목으로 해마다 그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해충인 진딧물, 뿌리 혹 박테리아 등 질병으로 인해 고사되고 있으며, 아직도 그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밀원수 심기와 아카시아 나무 보호 정책이 정부로부터 정책 배려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밀원수 늘이기와 보호하는데 양봉인 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이다.

업친데 댈친격으로 아카시아 밀원수의 질병과 자연환경에 의한 피해로 04년과 05년에 꿀작황이 평년작의 약 20%, 50%등 연이은 흉작으로 모든 양봉농가가 생활고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한 시장 경제의 어려움으로 꿀 소비마저 감소되고 있으며, 우리 양봉농가가 05년도에 생산된 아카시아 꿀이 현재에도 많은 양이 남아 이월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지난해는 뜻하지 않은 6월 잡화 꿀 풍작으로 농가들은 수익에 기대를 많이 하였으나 잡화 꿀 또한 생산량이 많아 일부 농가는 아직도 팔지 못해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판매시장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더욱 반복될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WTO-DDA농협협상, FTA 다자간 농협협상 등이 점차 타결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화의 장벽이 낮아지게 되어 우리의 농산물 가격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농산물 중 외국산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높은 분야들은 가격경쟁에서 설 자리를 잃고, 국제화의 높은 장벽에서 급격히 일부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개방화, 글로벌화 되는 경쟁 속에서 양봉산업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인 시장기능의 강화와 친환경 고품질 양봉산물생산과 함께 특히 소비촉진을 위한 노력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본다.

1. 양봉산물의 가능성을 찾아 홍보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해 6월 잡화가 현재까지도 판매치 못한 꿀이 아직도 생산자의 손에 있으며, 가격 또한 예년에는 아카시아 꿀 값과 대등하였는데 현재는 100만원 ~ 130만원에도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에 생산될 아카시아 꿀도 평년수준의 작황만 된다면 꿀

이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많아 지난해 밤 잡화 꿀 가격과 같이 하락돼 판매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소중한 양봉소득이 심각한 상황에 봉착당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양봉산물의 효능과 기능성을 찾아서 소비자들이 먼저 선호하게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양봉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인적 역량을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양봉학과는 한곳도 없는 현실이며, 그나마 국립대 농대의 농생물학과에서 일부 양봉학이 개설되어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학의 양봉학과 개설 등 고급 인력을 양성하여 외국과 같이 많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국립양봉연구소나 일부대학교에서 꿀의 기능성 성분과 질병치료, 꿀벌의 육종, 화분매개 등 여러 가지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여기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최근엔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꿀이 항생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특히 마누카(manuka) 꿀은 뉴질랜드의 Waikato대학의 꿀 연구소 소장이자, 생화학 교수인 몰란 박사가 18여년간 연구한 결과 꿀의 항생제로서의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지금은 살균 처리한 꿀이 의약품으로서 창상, 항생 치료제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마누카 꿀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꿀 가격 또한 매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의 마누카 꿀 같이 우리의 주 생산물인 아까시아 꿀이나 밤 꿀을 이용해서 연구를 한다면 효능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의심치 않는다.

양봉협회에서도 양봉 농가를 위해 하루속히 판매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친 환경 고품질 생산과 자연 건강식품으로서 기능성을 찾아 소비자에게 신뢰를 준다면, 현재보다 꿀 소비량이 늘게 되어 생산자들도 마음 놓고 양봉업에 종사 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양봉농가의 자세

양봉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때면 양봉 농가를 원망하거나 양봉농가의 대표기관인 양봉협회를 탓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제는 누구의 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지금의 이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아 돌파구를 찾아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연이은 흉작과 차량연료비상승, 꿀벌사료(설탕 값)대폭인상, 양봉산물의 가격은 하락되는 추세에 있고, 전국 어느 지역을 가나 벌통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이 모두가 생산자의 경제적 부담이고, 현재 양봉농가들은 3중고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만약 고품질 꿀을 생산하고도 판매치 못한다면 양봉산업은 급격히 쇠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도 일부 양봉 농가들은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대량으로 저 품질 꿀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이 생산한 꿀이 일반 꿀로 둔갑되고 인증되어 낮은 가격으로 시중 대형 마트에 대량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순수한 꿀은 대량으로 유통되는 저 품질 꿀 가격에 밀리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어느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 지도 모르고 낮은 가격의 꿀만 선호한다면 순수한 꿀은 판매가 적어질 것이고, 이러한 현실을 양봉농가의 대표기관인 협회에서는 바로잡아 가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저 품질 꿀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일부양봉농가

도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할 말은 많이 있겠으나, 가격이 낮은 저질 꿀과 일부 몰지각한 꿀 수입업자들로 인해 순수한 꿀만 생산하는 농가들은 판매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질 좋은 꿀을 생산해서 서로가 잘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3. 자조금 모금과 협회 이전비용 부족분 모금방안

양봉산업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외부적 요인과 내적요인 모두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자조금은 생산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자발적 자조금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의무 자조금등이 있으며, 정부에서도 자조금이 조성되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책 사업이기도 하다, 모든 농·수·축산물의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위기에 몰린 국내 다른 축산 농가들은 십시일반으로 자조금을 거둬 자구책 마련을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양봉분야는 아직은 자조금 거출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있으며, 양봉업이 더욱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기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연이은 흉작으로 인해 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부딪쳐 때를 놓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협회에서도 앞으로 기금 조성에 대한방안을 세워 기금 조성을 할 예정이며 우리 양봉농가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자조금 기금이 마련되면 양봉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생산자 교육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위해 쓰여 져야 할 것이고, 자조금 조성은 생산자 모두를 위한 길이며 자조금 모금에 대한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 모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알아야 할 때라고 본다.

※ 양봉협회사무실 이전 부족기금

필자도 평상시 협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으며, 다른 분야에 비하여 발전이 없는 것을 많이 원망도 했었다.

우리 양봉농가의 대표기관인 양봉협회가 이렇게 열악한지는 임원이 되고 난후에 알았으며, 협회사무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업무의 폭진 및 실험실 검사기계의 노후 등 어려운 현실을 보고 본인역시 그동안 협회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을 알았으며 양봉협회는 양봉농가를 위한 봉사하는 단체인데, 양봉인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협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협회도 어려운 시기이겠지만 힘든 우리 농가를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정부에게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협회와 양봉가 모두 협력할 때 우리의 양봉산업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한국양봉협회가 설립된 지 34년 간 양봉산업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그동안 2차례의 이전 끝에 겨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협회가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새로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협회가 더욱 양봉산업을 발전시키고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원해주고 격려할 때 우리의 양봉 산업의 발전이 한층 더 앞당겨지리라 본다.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이때 양봉농가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으며, 협회이전 비용 분담을 위해 십시일반 모금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로 협회 임원에 선출된 모두는 양봉농가의 권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다하겠고 협회가 올바르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